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아주 특별한 밤



그날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밤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왔는데 어떤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어떤 이는 주의 나심을 성전에서 평생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왔고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은 천군천사의 찬양을 듣고 달려 왔습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선물들이 놓여 있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도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를 가지고 올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33년 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아기 예수께 우리도 예를 드리고 꿇어 엎드려 경배함이 옳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목사 박노철



Vesele Vanoce! (체코어로 Merry Christmas)

어드벤처 분위기가 무르익은 프라하에서 성탄 인사 드립니다. 지난 주일(16일)은 꼬빌리쉬 일본어예배 4주년 기념 예배와 성탄축 콘서트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4년간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뜨거운 기도로 도와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주재원 가족, 유학생으로 교체하던 분들이 올해도 일본에 귀국하게 되면서 서운함이 있었습디만, 새로 부임한 성도 가정과 새로운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체코 성도들과 여러 행사로 교류를 가지면서, 보흐니체 정신병원을 위한 자원활동도 본격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새해 저희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1. 프라하 꼬빌리쉬교회 안의 체코 공동체, 한인 공동체와 동역하면서, 체코 땅에서의 복음 선교에 기여하는 일본어 공동체가 되도록.
2. 주일 일본어예배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3. 일본인 유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도록.
4. 일본어 공동체가 주관하는 음악 콘서트 등의 행사를 통해서, 체코에 사는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도록.

5. 2015년 여름에 꼬빌리쉬교회 일본어공동체가 호스트가 되어서 프라하에서 개최하게 되는 유럽일본인트리스천수양회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체코 프라하에서 손신일, 민매라 선교사

Merry



온통 깜깜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어느것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상으로 바꾸러 오신 아기 예수, 진리가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로 꽉찬 우리가 사는 곳에 참 진리임을 나타내시러 오신 아기 예수, 불안과 불만족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건져 주시러 오신 아기 예수, 잡아보려해도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애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확실한 미래로 인도하시러 오신 아기 예수, 어디로 가야하는 지 몰라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길이 되려고 오신 아기 예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람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과 사람의 생명의 근본임을 보이러 오신 아기 예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한없이 주러 오신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축하하며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의 한모퉁이에서 전광혜 선교사



고팔바리 마을에 11년 전 작은 미션스쿨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의 무지를 깨우는 것은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도 있고요. 이제 이들이 자신의 부족 복음화를 위해 애쓸 것입니다. 감사하게 작년 12월 성탄절에 고팔바리 마을사람들 모두가 모여 첫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이 마을에 '시골의사진료소'를 개소하여 목회자가 부족장을 비롯하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함으로써, 교회가 작은이들의 빛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마을 여러 곳에 맑고 깊은 우물을 파고자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이 마을에 '생명의 우물'을 파 주셨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런 좋은 물을 얻은 것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우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생명수 되시는 주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식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종부족 최초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을회의에서 마을의 모든 가정이 예배당을 위해 벽돌을 기증하고 건축을 돕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서울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셔서 다음달부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담요를 한 아름 사들고 가서, 하종부족 사람들과 함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러 합니다. 임마누엘!

방글라데시에서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김평강 최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을 맞아 이 곳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웬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얀 눈과 추운 날씨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 곳은 더운 크리스마스 입니다. 여전히 여름이고, 휴일도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외곽의 조그만 교회에 가서 성탄절 기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성탄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도시의 언니오빠들이 몰려와 함께 노래하고, 인형극도 보여주시 동네아이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신의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영적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들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베트남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주신다면 다가오는 2013년에도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베트남에서 김평강, 최사라 선교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막 시작했던 2012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겁이 납니다.
 해놓은 일도 없고 열매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시간이 막 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소망의 아이들의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방글라데시 온 땅에 찬양으로 울려 퍼질 그 날이 올때까지 같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일에 같이 하시는 서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에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성탄과 새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슈보 보로딘~~^^

방글라데시에서 조남혜 선교사



고 김상철 장로님 조사

사명에서 소명으로



김상철 장로님이야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보다 한국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국 땅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바쳐 일생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가 짧았고 한달이 더욱 모자랐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이 더 우선이었고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날을 쪼개고 시간까지 쪼개면서 사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의 편에 서기 위해 본업인 변호사의 일보다 인권을 살피려고 있는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사명으로 끝나지 않고 소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후 그의 삶과 생애는 더 큰 차원의 일꾼으로 바뀌

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국운을 하나님의 섭리로 옮기기 위해 더 큰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탈북난민을 위한 혼신의 열심이 그를 더욱 소명자로 부각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북한 공산주의 소멸을 위해 열심을, 최선을,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시었고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김상철 장로님이 소명을 받은 후 행한 모든 업적과 행적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또 18년동안 귀신들려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 병들어 쓰러진 김상철 장로님에게 찾아오셔서 네 병이 나을 지어다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서울교회의 온 성도들

이 밤낮으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장로님은 병중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원망과 아쉬움이 인간이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지금 김상철 장로님은 주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십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기에 소망 중에 큰 안위가 됩니다.

김상철 장로님.

많이 크게 일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장로님의 미완성 사역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장로님, 주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2012. 12. 17

서울교회 장로 김광신

서울교회 사료정리

교회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기록

김민철 집사(순례자 차장)

우리 예배당은 지상 9층짜리 건물입니다. 하지만 9층보다 더 높은 곳, 천정 안에도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별로 아는 이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방인 이 곳은 '역사자료실'입니다. 이 방에는 서울교회 창립 이래 2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왔던 수많은 사역의 자취들이 수 천, 수만 페이지의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곳을 발견한 것은 2009년 여름,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를 집필할 때였습니다. 당시 교회신문 <순례자>외에는 집필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 애를 먹다가 이 곳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소중한 자료들이 많았지만 먼지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만 있을 뿐 정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내년이면 햇수로 5년째입니다. 그 사이 <코람데오>를 발간 했지만, 사료 정리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을 보면, 창립 이후 지금까지의 당회의안, 공동회의록, 제직회와 스테반회, 남녀선교회 관련 서류, 교적과 교구관련 서류,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자료나 선교활동 자료,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설교 및 특강 교안, 교역자들의 목회보고서, 목회자세미나와 김치세미나, 비전2020운동, 바자, 사명자대회, 흥해작전 관련 기획서와 보고서, 예배일지, 각급 교회학교 주부와 회의록, 수련회 관련자료, 교회 건축

당시 계약서와 설계도, 각종 현금과 재정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등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이 망라돼 있습니다.

다 지난 자료 모아서 뭐하겠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수 천 년 간 오롯이 전해진 하나님의 '기록물'이며 그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서기나 회계, 또 멀티미디어 담당자들은 중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서울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기록물 정리를 탁월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아브라함선교회' 분들이십니다.

모든 부서가 아브라함 선교회처럼 기록물을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기록 관리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냥 버리는 부서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다음세대를 위한' 중차대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역사자료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청년들

크리스마스칸타타 초대이글 -가브리엘

Gabriel choir
Magnum Mystorium
Christmas Cantata

오! 탄생의 신비여

탄생의 신비를 간직하신 채
가엾은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탄생 앞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경배를 올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이 계절에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 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태우고서야
이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최고의 찬양을 올리기 위해
가브리엘 찬양대가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저녁 가브리엘 찬양대와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고
은 누리에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정수 장로(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성탄절 저녁 가족예배

성탄 저녁에 드리는 가족예배

성탄절 저녁 가족예배 순서

- 예배를 드리는 기도 가족 중 어른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함께 부르는 찬송 123장(통일 123장) 다함께
- 교독문 다함께

-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가 족: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가 족: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가 족: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가 족: 이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 인도자: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 족: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 감사기도 다함께
- 찬 송 111장(통일 111장) 다함께
- 성 경 마가복음 10:45 가족이 다함께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신비 가족 중 어른
- 주기도 다함께

기 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신비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 재래 종교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의 아들이 되어 오신 성탄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재래 종교가 상상도 할 수 없
었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데에 성탄이 지닌 또 하나의 신
비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인간이 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은 우리의 상
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고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은 성탄이 지닌 더욱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사람의 종까지
되셨고 거기다가 인간을 위한 제물(대속물)이 되신 것이야말로 몸 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신비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구체화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성탄의 신비를 우리도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높아지고 섬김
받을 줄만 알았지 낮아지고 섬길 줄 모르면 성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
습니다. 성탄절을 맞기는 하되 성탄의 문외한으로 남지 말고 성탄의 신
비를 안고 생활 속에 나타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축하 찬양예배 - 23일(주) 오후 5시, 가브리엘 찬양대
성탄전야행사 - 24일(월) 오후 7시 - 본당
성탄절 새벽예배 - 25일(화) 새벽 5시 - 본당
성탄절 축하예배 - 25일(화) 1부:오전 9시 / 2부:오전 11시

성탄절기를 맞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23일(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일(월)에는 성탄전야행사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갖는다. 성탄전야행사는 어린이찬양예배부(헨드벨), 유아부, 중등부, 사랑부(난타공연), 유년부(엔젤스), 고등부, 초등부(글로리아), 대학부, 청년부,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유치부, 청년부(헨시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참가부서가 연합으로 성탄찬양을 드린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축하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드리며, 성탄감사 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찬양으로 가브리엘 찬양대(대장:오정수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백경화 집사의 지휘로 바하 작곡의 "환호하라 이 날을 찬양하라", "경배하며 감사 찬양", 프랑크 작곡가 풀랑의 "오 탄생의 신비여", "저 하늘의 별" 등 여섯곡을 찬양드리며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조현정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집사, 타악기 윤종현 성도와, 챔발로 구민수 선생, 플루트 정한솔 선생, 오보에 강다해 성도(아멘관현악단), 트럼펫 김승언 성도(아멘관현악단)가 함께 협연 한다.

신앙강좌 2부 2학기 수료자 명단

김웅기, 김철문, 김정자, 박광순, 박인규, 최향숙, 이갑수, 이우식, 조봉자, 육순자, 서은석, 김미성1, 오민세, 오세백, 김태욱, 김정순, 이영재, 박종구, 이선자, 황현숙, 이한룡, 유관모, 최정환, 윤운, 장미례, 이진화, 문분순, 신병욱, 윤금숙, 이태원, 이종창, 이운영, 정현구, 서경락, 오치열, 안준홍, 이창희, 장호영, 김지은, 유덕자, 박화실, 이유성, 이미연, 김미선, 김 설, 오가연, 조복자, 곽숙, 김해수, 박공순, 김태희, 박은정, 김양경, 백경애, 이경화, 주경자, 김설아, 신호용, 최죽희, 박인자, 류기승, 강신행, 홍현미, 문옥희 (총 64명)

2013년 성경통독 사경회

1. 3(목)~4(금) 09:30-17:00/ 101호

2013년을 맞아 전교인 통독사경회를 1월3일(목)~4일(금)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 범위는 시편 ~ 예레미야애가서다. 성경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며 낭독은 전일교역자들

이 담당하고, 매 교시 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람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7일(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미래한국신문 창간10주년감사와 후원의 밤에서 설교한다. 28일(금) 고 김상철장로 기념사업회 설립준비 모임에 참가한다.

■ 진승근 집사 족구선교회 회장에 선출되다

■ 주간식당봉사: 리브가전도회(12.23) 스테반회(12.30)

■ 금주의 식사: 박석현집사·김점숙 권사 가정
박형준 집사·조수현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예루살렘 찬양대 성탄찬양

오늘 오후 12시20분 ~1시

- 일시: 12월 23일(주일) 12:20 ~ 13:00

- 장소: 만나 홀

"Joy to the world"(기쁘다 구주 오셨네)등 9곡을 칸타타형식으로 찬양(합창, 독창, 4중창등)

- 식사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함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2독 - 5교구 이운영 권사 / 5독 - 3교구 김수정 집사
 4독 - 2교구 윤만현 권사 6교구 서영세 권사
 2독 - 8교구 임윤자 권사 11교구 조봉자 권사 13교구 주동재 집사
 1독 - 1교구 백명자 권사 유선희 권사 진교남 집사 2교구 최홍열 집사 3교구 권소희 집사 4교구 류기찬 집사 윤용미 권사 최종희 집사 8교구 김영일 집사 박정옥 권사 11교구 김태욱 권사 13교구 김동진 권사 박혜정 집사 심영숙 성도 이금순 권사 장성자 집사 최성을 집사 최춘숙 집사 14교구 최죽희 권사 16교구 송추월 성도 장양일 집사 정정숙 권사

세례자 명단

지난 12월19일(수) 수요일 1,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 학습, 유아세례를 거행하였다.

<세례자> 공경주, 두상순, 송미숙, 안혜경, 정상준, 김기남, 김동우2, 김미자2, 김현석, 송은주, 이현주4

<입교자> 심 찬, 윤진원, 이동현4, 김태욱1

<학습자> 김일병, 박광훈1, 신원열1, 우선영, 우현주, 이명준,

이현주14 홍영희2, 홍지희2 박연성, 이선민1, 이영철1,

홍지원1

<유아세례자> 김강유, 오예준, 홍이든 이시은



성도들 간의 교제의 공간으로 마련한 9층 쉼터(가칭)가 오늘부터 운영 된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라며 아울러 쉼터의 이름을 공모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는 cyc@seoulchurch.or.kr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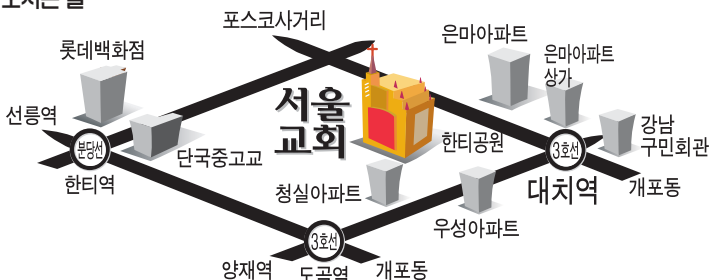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탄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기쁨이 이 세상 곳곳에 흘러들어온 세상이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2.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3. 2013년에 새롭게 시작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성령의 기쁨부오심의 큰 부흥이 임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